

‘황혼의 닷’ 치매 증상과 예방법

아침 꼭 챙겨먹고 움직이고 대화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10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표했는데, 65세이상 노인 진료비가 13조 7847억원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 치매 진료비가 전년대비 2903억원으로 32%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 환자가 늘어남은 물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그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알츠하이머 병·고혈압 등이 원인 질환 혈관성 치매 조기 발견해야 악화 막아

- 치매 예방 10 계명**
- ▲ 정기적인 건강 관리
 - ▲ 뇌졸중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비만 등) 제거
 - ▲ 균형있는 식사와 소식
 - ▲ 노후 계획과 젊게 살기 위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
 - ▲ 꾸준한 정보 활용 지속적인 정신 활동
 - ▲ 항상 즐겁게 생활하는 긍정적인 태도
 - ▲ 노인성 난청의 즉각적인 교정
 - ▲ 백내장과 같은 시력 저하 즉시 교정
 - ▲ 술은 삼가는 게 좋으며, 최대한 절제
 - ▲ 노인대학 혹은 단체에 참가해 지속적인 사회 활동

◇치매란? =과거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치매를 노망(老妄)이라고 부르면서, 나이를 먹게 되면 오게 되는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치매가 단지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그런 노화의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치매는 여러가지 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병적 증상으로 사람의 지적능력과 사회적 활동 능력의 소실을 동반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즉 치매는 그 자체가 ‘진단 병’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어떤 기준을 만족시킬때 일컫는 말로 하나의 ‘증상 복합체(증후군)’이다.



류상호 국모병원원장이 최근 들어 급격히 떨어지는 기억력을 호소하는 70대 노인의 상태를 진찰하고 있다.

◇치매의 원인과 증상=치매의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 병,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헌팅톤 병, 크루츠펠트-제아아콰병, 광병, 뇌수종 등이 있으며 그 외 뇌종양, 대사성 뇌 질환, 갑상선 질환, 영양결핍 등도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많은 원인들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과 ‘혈관성 치매’이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많은 질환들 중에 가장 흔한 것이다. 이는 기억과 다른 지적 능력을 담당하는 뇌 신경세포들이 변성을 일으켜 발생하는 것으로 첫 번째 증상은 가벼운 기억력 장애이다. 특히 치매에서의 기억력 장애는 ‘건망증’과 구분되는데, ‘건망증’의 경우 기억의 되돌림이 가능하지만, 치매에서의 기억 장애는 기억의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다. 예를 들어 “아차! 그거 었지, 참나 그거 기억이 안나서 말이지~” 라며 기억을 되 살릴 수 있으나, 치매에서의 경우는 “어 전히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랬었

나?” 라며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 또한 치매에서의 기억장애는 최근 기억에 대한 경우 두드러진다. 즉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했던 말들, 들었던 이야기 등에 대해서 기억이 없거나 지고 과거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을 잘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후에 병이 진행되면서, 언어 구사력이 떨어져 대화시 이해력도 낮아지며, 읽고 쓰기 능력에서도 장애를 보이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진행성 퇴행성 뇌 질환은 파킨슨 병인데, 이들 환자들은 중 약 30%~40% 정도의 파킨슨 병의 말기에 치매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파킨슨 병은 뇌에서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몸과 팔·다리가 굳고, 동작이 어둔해지는 병으로, 주로 가만히 있을때 손을 떠는 진전을 보이고 말이 어눌해 지는 증상을 보인다. ◇치매의 진단 및 치료=치매는 지

사람들은 인지능력이나 정신능력이 갑자기 나빠졌다가 잠시 회복 되기도 하고, 다시 나빠지기도 하는 단계적 악화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팔, 다리 등의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나 운동장애 등도 같이 나타나게 된다. 이 혈관성 치매는 일단 발생하면 완치는 될 수 없으나 초기에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진행성 퇴행성 뇌 질환은 파킨슨 병인데, 이들 환자들은 중 약 30%~40% 정도의 파킨슨 병의 말기에 치매의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파킨슨 병은 뇌에서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몸과 팔·다리가 굳고, 동작이 어둔해지는 병으로, 주로 가만히 있을때 손을 떠는 진전을 보이고 말이 어눌해 지는 증상을 보인다. ◇치매의 진단 및 치료=치매는 지

적, 사회적 활동 및 일상 생활 능력의 장애를 보이는 ‘증상의 복합체’로 그 치료는 원인 질환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와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험많은 치매 전문 의사의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감별하기 위해 뇌자기공명 영상(MRI) 또는 뇌 전산화 단층촬영(CT)가 필요하며, 그의 뇌의 감염성 질환 및 대사성 질환 등을 감별하기 위해, 기타 혈액 검사 및 뇌파 검사 등을 해야 한다. 치료 또한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흔한 치매 질환인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 항산화제, 항소염제, 및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 등이 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뇌졸중의 치료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국모병원 류상호 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치과대학 ‘치의학박물관’ 개관

의료기기 등 330점 전시

지난 1973년 호남 지역 최초로 개교한 이래 올해로 제32회 졸업생을 배출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수관)이 치의학박물관을 개관했다.

호남지역 치의학의 역사성을 정립하기 위해 문을 연 치의학박물관(관장 정재현)은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치의학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중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한데 모아 전시함으로써 치과대학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치의학 분야의 변화 양상과 발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치과대학 1층 로비에 54.5㎡ 규모로 자리한 치의학박물관은 13개 진열장에 치의학 실험실습기자재 관련 유물 156점, 치과 관련 모형물 174점 등 총 330점이 진열돼 있다. 구내 방사선 촬영기, 치과치료에서 사용하는 전동기인 J.M.Sion Dental Engine, 1977년 구입한 Verti Calator, 1979년 구입한 Eletro Phoresis, 광중압기, 이빨강



치과의사들이 환자의 충치를 치료하는 모습을 담은 조선대 치의학박물관의 조형물.

메이타, 슬라이드 프로젝터 등 치과대학에서 사용했던 치과의료기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치과대학은 보존가치가 있는 치의학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를 선별해 기자재 이력 관리에 필요한 박물관 유물조사표를 의해 품명·모델·제조회사·생산년도·사용처 등을 정리하고 사진 촬영·세척·용접수리 등을 거쳤으며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물 설명서를 부착했다. 김수관 치과대학장은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1973년 12월 개교한 조선대 치과대학의 뿌리를 찾기 위해 치의학박물관을 개관했다”며 “앞으로 광주시와 연계해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투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1981년 개원 광주한국병원 개원 30주년

광주한국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한국병원은 지난 1981년 4월 2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일반외과·정신외과·신경외과 세 분야의 전문의가 이 지역 최초로 공동 개원(40병상)으로 설립했다. 1984년에는 지역민의 관심으로 서구양동에 지하1층·지상5층의 70병상으로 신축·이전했고, 일반 내과를 개설해 내·외과의 전문화된 진료에 앞장섰다. 이어 4년 뒤인 1988년에는 지

하1층·지상 3층의 별관을 신축했다. 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병원은 1996년 250병상의 현재의 상촌동 신축 건물로 이전하고, 병원 명칭을 ‘광주한국병원’으로 개명했다. 1999년에는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응급의학과를 개설했다. 2005년에는 피부·비뇨기과를 개설했으며, 다음해에는 소아과와 진단검사내·외과의 전문화된 진료에 앞장서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병원은 2006년 4월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승격됐다. 2007년 9월에는 ‘윤암한국병원’을 개원해 최첨단 의료시설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지역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박승현 광주한국병원장은 “무료 의료봉사·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타이완 국제 건강 의료 전시회

6월24일~27일 대만 타이베이 무역센터

대만대의무역협회(TAITRA)가 주최하는 ‘2011타이완 국제 건강 및 의료 전시회’(Taiwan Health 2011)가 오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타이베이 세계 무역센터 전시장(TWTC Hall)에서 열린다.

Taiwan Health2011은 의료기기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포괄하는 의료 산업 전문 전시회로, ‘타이완 국제 살베 전시회’(SenCAR-E 2011)와 동시에 개최된다. 전시품목은 의료설비, 실험실 기

기 및 바이오 검사 설비, 보조기구, 살베 제품, 진단기기 및 설비, 소독기기 및 설비, 치과·정형외과 기기 및 설비, 수술설비, 응급치료설비 등으로 150개 업체가 참가, 3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시회 관람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taihealth.com)를 참조하거나, 서울대만무역센터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문의 (02-508-8736). /채희종기자 chae@

쌍꺼풀 수술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전통윤리에 근거를 두고 생활을 하며 미용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생활 양식도 변화해서 밝은 표정이 있는 쌍꺼풀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나 같은 쌍꺼풀이라도 동양인에게는 동양인의 쌍꺼풀이 있고 안면골의 골격이나 눈의 연부조직이 서양인들과 다른 동양인으로는 눈단을 서구인에 닮으려 해도 부자연스러우며 또 다른 기관과의 균형도 잡히지 않

을 수 있다. 짙은, 쌍꺼풀 풀어짐, 수술 부위 흉터가 생기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통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서구적이 얼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표정이 있는 동양적인 쌍꺼풀을 만드는 것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쌍꺼풀 수술이란 중검 예정선의 피부를 검판 또는 안검거구의 적당한 부위에 유착시키는 조작이다.

수술방법은 피부 비절개는 매물법이라고도 하며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희망하는 경우이며 수술 후 수명이 용이하여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심리적 부담이 적고, 젊은 여성들은 절개수술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안검 피부가 과다하거나 안검하수, 안검, 안와 지방의 과다 또

는 반흔이 있는 상안검 등에서는 피부절개법이 적절한 수술이라고 생각된다.

수술전 시력검사, 안검하수의 유무, 좌우의 균형을 관찰하여 술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며 환자가 이해하고 승낙하는 것이 수술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물론 수술 후 경과에 대한 요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술 후 1주일 이내는 세면이 불가능하며, 목욕은 발사 후 3일 후에 안검의 부종이 3개월 정도 되어야 거의 없어지며 6개월이 되어야 수술자국도 대부분 사라진다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 062-227-3777 무등극장 앞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광고